

설 연휴 쓰레기 수거 만전

무주군, 29일~2월 2일까지 쓰레기 관리 상황실 마련·운영

무주군이 설날 명절을 앞두고 청정 무주를 방문하는 출향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무주를 위한 쓰레기 수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쓰레기 관리 상황실을 마련·운영하면서 쓰레기 수거와 민원, 불법투기 신고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는 무주읍의 경우 2월 1일 설 당일 제외하고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수거하며, 무풍과 설천, 적상, 안성, 부남면은 30일과 2월 1일을 제외하고 3일간 수거한다.

무주군 대표 관광지인 구천동의 경우는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9일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30일

집중 수거(1.30./1.31./2.2.)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는 30일과 2월 1일을 제외하고 29일에는 설천면과 적상면, 무주읍, 31일에는 구천동, 2월 2일에는 안성면과 무주읍에서 수거할 예정이다.

오는 28일까지는 '설맞이 국토대청결운동'도 진행한다. 6개 읍·면의 가로변과 하천둔치, 공원 등 관리취약지역에 대한 청소도 집중할 예정으로 마을방송과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7일에는 무주군청 공무원들이 각 실과원소별 담당 구역에 정해 군청과 반딧불시장, 터미널 등 무주읍 시가지 권 전역에 대한 정화활동을 벌인다. 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화활

동을 위해 한 구역에 모이는 인원을 20명 내외로 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박영석 팀장은 "주민과 귀성객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통해 수거 지연과 쓰레기 적체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수거요청지역에 대한 탄력 수거를 진행해 주민 만족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1월 21일부터는 "재포장·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한다.

행정-농협 협력으로 농가 부담 ↓

진안군,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협력 지원 확대

진안군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한다.

군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추진 중인 '특화품목 발굴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경 행정농협 파트너십 구축 간담회 시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추진계획 협의 등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뤄낸 성과다.

군에서 지원하는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보조 60%, 자담 40%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사업이다.

여기에 농협중앙회가 10%, 지역농협이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24억8,600만원이며 최종적으로 40농가가 선정됐다.

진안군 특화품목은 원예산업 종합계획에 8개(수박, 사과, 토마토, 깻잎, 오이, 멜론, 배추, 영지버섯)로 지정돼 있다.

이중 수박, 토마토, 깻잎, 멜론 품목은 기상이변 등에 민감해 농업 현실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비가림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박은 진안군 주력 품목인만큼 수박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병해충 예방 및 생산·유통·지도·교육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시장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철재 및 자재값 인상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행정과 농협 간 협력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적극 동참해주신 농협중앙회진안지부 및 지역농협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불소양치용액 무료 배부

진안군은 관내 주민의 구강질환예방을 위해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배부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스스로 구취(입 냄새)를 느끼거나, 이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구강위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입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 섭취 후에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하고 보다 더 꼼꼼한 칫솔질을 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불소양치용액은 잠자기 전 칫솔질 후 용액 10cc 정도를 1분간 매일 한번 가글해 준다. 주의사항은 삼키지 않도록 하며, 용액을 뱉은 후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고 30분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아야 효과가 증대된다.

불소양치용액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세균 효소 활동과 치아를 녹이는 산 생성 억제 등에 관여해 치아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충치를 예방하며 시린아와 구취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칫솔질 후 매일 사용시에는 40~50% 충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한 구강건강관리 방법이기도 하다.

불소양치용액 신청은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가능하며 올바른 칫솔질 체험과 함께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불소양치용액과 구강위생용품을 함께 제공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물가 안정 동참 홍보

장수군은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장수시장에서 이희성 부군수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및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이희성 부군수와 직원들은 설 성수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 동참 홍보를 전개했다.

장수군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 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군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전통시장 상품 구매를 독려하고, 장수사랑 상품권 및 은누리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설 명절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은 오는 28일 장계시장에서도 전개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장보기 행사 진행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침체 상황에 있던 무주군 관내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무주군은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일 동안 읍·면 3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장보기는 25일까지 안성시장을 시작으로 26일 무주시장, 장보기 행사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설천시장에서 각각 열리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악수 금지, 집합금지 등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된다.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지방물가안정 캠페인과 함께 무주사랑 상품권 이용 캠페인도 아울러 전개한다. 장보기 행사 첫날인 25일 안성 덕유산 시장을 찾은 황인홍 군수와 시장 상인회 등 관계자들은 전통시장에 진열된 상품들을 둘러보면서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봤다.

이들은 또 상품권 구입처와 카드 및 지류 등의 종류별 사용법을 홍보하고 '전통시장 애용하기' 캠페인도 벌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교통편의 대책 마련해야”

진안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폐회... 이우규 의원, 5분 발언서 촉구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우규 의원

19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을 각각 심의·의결했으며, 20일부터 3일간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했다.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우규 의원(가선거구)이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교통편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우규 의원은 지난해 진안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3만1900명에 달한다며 "건강에 대한 어르신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영·걷기 등 유산소 운동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 위치 특성상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20여분 이상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진안군 어르신들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진안군 순환택시 운행시간 조정과 읍·면 소재지까지 차량을 운행하며 어르신들의 이용을 장려하는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사례를 언급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살기 좋은 진안, 행복한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반영으로 내실 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민원업무 담당 직원 심리검사 운영

무주군이 공직자들의 심리적 안정도 측정을 위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약성 민원봉사팀에서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을 보호하고 심리적 치료를 위한 취지에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2년도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장비를 통해 직원들의 현재 심리상태와 우울증 수치를 검사해 결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지난 12일 민원봉사과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무주군 분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지소, 맑은물사업소, 읍·면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보건지소로 정신건강센터 전담 직원이 동행해 실시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지난해 확보한 '자율심 건강검진도 및 스트레스 검사기'를 활용해 손가락을 통해 긴장도 스트레스 수치와 심리적 스트레스 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 공직자들의 민원응대 과

중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측정할 수 있다.

심리상담 결과와 스트레스 수치가 커 유소견이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검사 후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무주군 의회가 지난해 11월 제 288회 정례회를 개최해 각종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 여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심리치료와 검사에 탄력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